

더불어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거대책위원회

담당처 :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원회(구. 청년플랫폼)

담당자 : 홍서윤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수석대변인(010-4455-8255)

청년인재 함께 모여 ‘새로운 미래’ 구상 국가인재영입단과 청년선대위 영입인사 간담회 개최

- 이재명 선대위, 국가인재영입단과 청년선대위 영입인사 공식 합동 간담회 열어
- 선대위 청년들 모여 협력 프로젝트 구상, 국민 실생활에 도움 되는 프로젝트 추진 예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가인재영입단(백혜련 총괄단장)과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거대책위원회 인사영입단(이동학 단장)이 3일 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청년 인재들이 함께 모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선대위와 청년선대위에 영입된 인재들이 모여 개최한 첫 공식 간담회로써, 각 위원회별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두 조직이 선거기간 협업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국가인재영입단 백혜련 총괄단장은 “자기 스스로가 겪고 있는 문제를 당사자들이 이야기할 때 가장 큰 힘과 호소력을 가진다고 생각하며,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청년들과 함께 하겠다” 며 “오늘 청년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모든 면에서 청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느꼈고, 민주당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한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동학 청년선대위 인사영입단장은 “역대급으로 청년이 호명되고 캐스팅 보트라고 집중하고 있다” 며 “두 위원회가 합류하여 힘을 합쳐주기 위한 여러 분들의 결단이 없었더라면 힘들었을텐데 앞으로 함께하게 되어 조금은 발걸음이 가벼워질 것 같다” 며 두 위원회 간 협력을 환영했다.

합동 간담회를 제안한 서난이 청년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은 “좋은 동료가 되어 서로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며, “다같이 힘을 합쳐 이번 대선도 승리하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주도적으로 만들자” 라고 말했다. 이어 권지웅 공동선

대위원장도 “20대, 30대 남녀로 구분하지 않고 정치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바꿨으면 좋겠다” 라며 “정치를 삶으로 가져오는데 필요한 일이며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 라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를 진행한 두 위원회는 향후 선거 기간 중 협업을 통해 청년과 국민에게 필요한 사안을 발굴하고 활동해나갈 예정이다. (끝)

첨부	행사사진
----	------



